

## 국내 강제 실향과 소설의 시학: 라우라 레스트레포의 『떠도는 무리』를 중심으로\*

송 병 선  
(울산대학교 교수)

### ◆ 국문초록

국내 강제 실향은 콜롬비아 폭력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국내 강제 실향은 국제적 관심사가 되지 못했고, 이것에 대해서 다룬 문학 작품도 많지 않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인 라우라 레스트레포(Laura Restrepo)의 소설 『떠도는 무리』(*La multitud errante*)는 출간 당시 국내 강제 실향을 다루는 몇 안 되는 작품 중의 하나였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황은 그리 많이 바뀌지 않았다.

이 글은 라우라 레스트레포의 『떠도는 무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정체성과 집/가정의 관계를 해체하고, 국내 강제 실향이라는 이주/이동의 관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과 집/가정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그 관계에 내재하는 개인과 집단, 그리고 폭력의 문제를 알아본다.

『떠도는 무리』는 콜롬비아의 국내 실향이라는 특정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라틴아메리카의 상황을 상당 부분 반영하기도 한다. 이것은 이 작품이 콜롬비아를 비롯해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국내 실향민들의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 국내 실향, 이주, 라우라 레스트레포, 정체성, 콜롬비아 폭력 사태

\* 이 논문은 2024년도 울산대학교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1. 들어가는 말: 국내 실향의 문제

국내 강제 실향(desplazamiento forzado interno)<sup>1)</sup>은 콜롬비아 폭력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 현상은 1994년 초코(Chocó)주에서 대규모로 일어난 이후 국내 무장 분쟁으로 얼룩진 다른 지역으로 확산했다(Olaya 2007:237). 한편 1999년 12월에는 무장 분쟁으로 자기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난 1,000여 명의 실향민들이 국제 적십자 연맹 보고타 지부를 점령하기도 했다. 그들의 목적은 적십자 건물을 평화적으로 점령하여 콜롬비아 정부가 국내 실향민에게 관심을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경찰은 그들을 일종의 폭도로 여기고서 곤봉과 최루탄으로 해산시키려고 했고, 국내 실향민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이 사건은 3년 후인 2002년에야 마무리된다(Rueda 2004:392).

인권과 강제 이주 상담소(CODHES, Consultoría para los Derechos Humanos y el Desplazamiento)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12년까지 무장 분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살던 곳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은 5백5십만 명에 이른다(Albornoz 2015:107). 그렇지만 이것이 공식 수치임을 고려하면, 실제 희생자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이런 비극적 현상은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었지만, 처음에 콜롬비아 사회는 침묵했다. 하지만 최근 20년 동안 국내 강제 실향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여러 접근 방식을 통해 눈에 띄게 많이 연구되고 있다. 태어난 곳에서 강제로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의 문제를 부각하는 데 이바지한 이 연구들은 하나 같이 국내 강제 실향이 최근 콜롬비아 문화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한다(Olaya 2007:237).

1) 이 용어는 자기 집 혹은 일상적 거주지에서 강제로 떠나야만 하는 현상, 특히 무장 분쟁, 무분별한 폭력, 인권 유린, 혹은 인위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살던 땅을 떠났지만, 국경을 넘지 않은 현상을 말한다. 국경을 넘었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난민’이라고 칭한다. 이 글에서는 문맥에 따라 ‘국내 강제 실향’ 혹은 ‘국내 실향’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기로 한다.

사실 콜롬비아에서 폭력으로 인한 강제 이주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사회학자이자 작가인 알프레도 몰라노(Alfredo Molano)는 “우리 역사는 끊임없는 이주의 역사이다. 그 이주는 간헐적으로만 중단되었을 뿐이다.”(2001:14)라고 지적한다. 콜롬비아 역사에서 국내 강제 실향은 전례 없는 규모로 이루어졌고, 탈영토화와 강제 퇴거는 오늘날 콜롬비아 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그래서 문학 비평가 루스 메리 히랄도(Luz Mary Giraldo)는 20세기 콜롬비아는 역사적·문화적으로 국내 강제 실향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난다고 단언한다(2008:38).

그러나 국내 강제 실향에 대해서 다룬 문학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인 라우라 레스트레포(Laura Restrepo)<sup>2)</sup>의 소설 『떠도는 무리(*La multitud errante*)』(2001)는 출간 당시 국내 강제 실향을 다루는 몇 안 되는 작품 중의 하나였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황은 많이 바뀌지 않았다. 이 소설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난 후 새로 정착할 곳을 찾아 정처 없이 떠돌면서, 실향의 트라우마를 지니고 살아가는 수많은 콜롬비아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이다. 그렇게 레스트레포는 콜롬비아의 무장 분쟁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심각한 결과를 낳았으면 서도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했던 사회적·정치적 현상에 눈을 돌린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떠도는 무리』가 출간된 해에 같은 주제를 다루는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출간된다. 그 작품들은 국내 강제 실향이라는 충격적이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현상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 주제에 대한 침묵을 깨는 데 일조한다. 대표적인 책이 알프레도 몰라노의 『쫓겨난 사람들(*Desterrados*)』과 여러 작가의 단편소설을 모아놓은 『타인의 장소

2) 라우라 레스트레포는 1950년에 보고타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콜롬비아 최고의 작가이자 지식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레스트레포는 정치적 위협으로 콜롬비아를 떠나 여러 나라에서 살아야만 했으며, 현재도 멕시코에서 살고 있다. 그녀의 작품은 그녀가 살았거나 살고 있는 곳의 역사적·정치적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레스트레포의 작품세계는 매우 다양하며, 그것은 지적 귀적의 다양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Lugares ajenos*)』이다. 두 작품 모두 레스트레포의 『떠도는 무리』처럼 살던 곳에서 강제로 쫓겨나 떠도는 주체의 정체성을 사회 계급과 젠더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우선 알프레도 몰라노의 작품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콜롬비아 국내 실향민의 운명을 여덟 가지 순간으로 그린다. 몰라노의 작품과 레스트레포의 작품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레스트레포는 『떠도는 무리』의 서문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글쓰기가 상당 부분 집단 작업이며, 각 개인의 목소리는 세대 간의 연결점을 찾아야만 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책이 내 작업과 알프레도 몰라노의 작업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기를 바랐다. 그 역시 콜롬비아 작가이고 오십 대이며, 같은 전쟁의 증인이고, 유사한 싸움을 취재한 기자였다. 나는 그의 허락을 받고 내 글 속에 그가 쓴 십여 줄을 섞어놓았는데, 그의 독자라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Restrepo 2001:11)<sup>3)</sup>

한편 『타인의 장소』는 로베르토 부르고스 칸토르(Roberto Burgos Cantor), 페르난도 크루스 크롱플리(Fernando Cruz Kronfly)를 비롯해 여러 작가가 열네 편의 단편소설을 통해 콜롬비아 국내 실향민의 문제를 다룬다. 이 선집은 천일전쟁(1899-1902) 때문에 수만 명의 콜롬비아인들이 국내를 떠도는 현상을 소설화한 『신병(*La recluta*)』(1901) 출간 백 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집이다. 여기서 화자들은 강제 이주의 기원이 된 폭력과 강제로 쫓겨난 주체들, 특히 국내 실향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한다.

‘국내 실향민’은 폭력 사태로 인해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만 했던 사람들이다. 이 용어는 그들이 고정된 곳에 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주체성’이 배제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 폭력은 정

---

3) 앞으로 레스트레포의 이 소설을 인용할 때는 괄호 안의 숫자로만 표기한다.

부군 혹은 반정부군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행위자들이 누구인지는 대체로 알려져 있다(Rueda 2004:392). 이 글은 현대 세계가 자발적인 이주/강제 이주, 이동으로 특징지어져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주와 글쓰기, 그리고 정체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라우라 레스트레포의 『떠도는 무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정체성과 집/가정의 관계를 해체하고, 국내 강제 실향이라는 이주/이동의 관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과 집/가정의 관계를 다루면서, 그 관계에 내재한 개인과 집단, 그리고 폭력의 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 II. 『떠도는 무리』의 시학: 지배적 서술 패러다임에 대한 저항

1980년대와 1990년대 콜롬비아 폭력은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주로 도시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의 폭력은 1950년대의 ‘폭력 사태(La Violencia)’로 알려진 농촌 폭력을 그대로 되풀이한다. 이런 농촌 폭력은 연쇄 효과를 일으켜, 보고타나 메데인 같은 대도시에서도 볼 수 있는데, 폭력을 피해 농촌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대도시 변두리의 소외된 공동체로 몰려왔기 때문이었다<sup>4)</sup>. 다시 말해서, 이런 농민들은 주요 도시의 외곽에 있는 임시 주거지나 쉼터로 이동한다. 마린 타보르다(Marín Taborda)에 따르면, 도시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시가 강제 실향민들로 타락하고 망가지고 있다면서 ‘분노’의 관점에서 이런 현상을 설명하지만, 농촌 사람 대부분은 이것이 미해결된 끊임없는 내전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1999:176).

마린 타보르다가 폭력을 도시/농촌으로 분류한 것처럼, 마리아 엘레나 루에다(María Helena Rueda)도 콜롬비아의 폭력 서사물을 두 범주로

4) 국내에 번역된 작품 중에서 이런 현상을 소설로는 페르난도 바예호(Fernando Vallejo)의 『청부 살인자의 성모 (La virgen de los sicarios)』가 있다.

나눈다. 첫째는 전쟁이나 폭력, 혹은 게릴라 소설로 대표되는 농촌 소설이고, 둘째는 마약 밀매 소설, 또는 도시 소설이다(2004:393). 그런데 농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소설은 그리 많지 않고,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 대다수이기<sup>5)</sup>, 도시의 관점은 많이 보이지만, 농촌의 폭력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콜롬비아 국내 분쟁에 관한 정보가 대중 담론과 방송 매체를 통해 걸러졌으리라고 추측한다면, 농촌 희생자들이 문학과 역사에서 배제되어 제대로 서술되지 않았으리라고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sup>6)</sup>(Averis 2015:292).

그래서 농촌에서의 학살, 강탈, 강제 퇴거와 국내 실항에 대한 공포는 도시 폭력의 광경, 즉 대도시에서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마약 카르텔이나 카르텔 사부대(私部隊)에 징집된 가난한 젊은이들, 혹은 청부 살인과 같은 범죄를 다루는 서사물에 압도되었다. 이제 도시 중심의 폭력 소설은 독자적인 장르로 여겨질 정도로 확산했고,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다. 그런데 도시 폭력을 다루건 농촌 폭력을 다루건, 폭력 소설은 콜롬비아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다시 말해, 폭력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콜롬비아를 본질적으로 폭력적인 국가로 보는 신화를 강화하는 것일까?

빅토리아 카펜터(Victoria Carpenter)는 폭력 서사물의 힘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서사 행위가 폭력 행위를 기억하는 한, 라틴아메리카의 폭력적 과거와 현재에 대한 집단적 기억은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자기

5) 최근 콜롬비아 작품 중에서 특히 마약 밀매와 청부 살인 현상과 같은 폭력을 다룬 소설로는 페르난도 바예호의 『청부 살인자의 성모』(1994), 호르헤 프랑코(Jorge Franco)의 『로사리오 티헤라스 (Rosario Tijeras)』(1999), 라우라 레스트레포의 『광기 (Delirio)』(2004), 안드레스 로페스(Andrés López)의 『배신자의 카르텔 (El cartel de los sapos)』(2008) 등이 유명하다.

6) 현대의 많은 콜롬비아 작가는 사실적인 작품을 쓰려고 한다. 이것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이후 마술적 사실주의의 유산을 떨쳐내거나 극복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마술적 사실주의가 배경으로 삼는 과거의 문학 전통, 특히 농촌 문학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경향 역시 작가들이 왜 도시를 선호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다.

파괴의 주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2007:22) 다시 말해, 폭력 서사물은 폭력을 정상적으로 여기거나 진부화하지 않고, 방송 매체와 문화 담론에 존재하는 선정주의나 신화화하는 경향을 피하면서 무장 분쟁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카펜터가 말하는 작품을 쓰려면 어떤 서사 전략이 필요할까? 라우라 레스트레포는 이것을 분쟁과 폭력의 지배적 서술 패러다임에 저항하면서 이루어낸다.

라우라 레스트레포가 분쟁과 폭력에 대한 지배적 서술 패러다임에 저항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초점의 이동이다. 다시 말해서, 콜롬비아의 마약 관련 소설이 도시인에게 과도할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 것과 달리, 레스트레포의 소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농촌 지역의 강제 이주 혹은 국내 실행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떠도는 무리』에서 레스트레포는 1950년대 폭력 사태의 시기부터 20세 후반을 거쳐 현재의 위기까지 콜롬비아 무장 분쟁이 농민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재앙을 일으켰는지 탐색한다.

또한 이 소설의 시학은 폭력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과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따라서 폭력 행위가 아닌 폭력의 영향이나 결과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그리고 대부분 폭력 문학이 남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과 달리, 여기서는 여성 세계가 주도적 역할을 하며, 여성이 지배하는 소우주는 이 작품의 이야기를 이루는 진정한 원동력이 된다(Capote Díaz 2016:119).

이런 시학을 『떠도는 무리』의 중요한 인물이자 화자이며, 프랑스 수녀가 운영하는 국내 실행민 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샘물(Ojos de agua)’은 이렇게 말한다.

저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이다. 나와 내 세상과 다른 것이고 내가 내 세상이 약하고 힘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곳에서 강해지는 것이며, 내 세상이 확신 속에서 공고해지는 바로 그곳에서 돌연한 공포가 되고 불안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고, 내 세상이 불신으로 와해하는 곳에서 생명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말에서 생겨난 것과 달리 진실

처럼 보이는 것이거나, 혹은 말이 없는 바람에 환상처럼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현실의 매듭이 드러나 있는 흠담 뒤쪽이다. 즉, 나와 함께 살았다면, 내 마음을 증언할 수 없었을 모든 것이다.(17-18)

외국인 여자 화자가 일인칭으로 서술하는 이 인용문은 이 작품의 시학적·정치적 원칙을 보여준다. 여기서 시학은 경계에 대한 사유를 통해 구현되고, 정치적 원칙은 강제 이주자의 생활과 소외된 삶, 그리고 끊임없는 이주로 인한 무력함과 무의지에서 드러난다(Díaz Zanbrana 2007:127). 또한 이 인용문은 작가의 원칙도 보여주는데, 그것은 자신이 잘 알고 있거나 익숙한 것이 아니라, 흠담 뒤쪽의 현실을 찾으려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곳은 현실의 어려운 문제가 더욱 눈에 띄며, 실제 현실을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장소이다(Mejía 2004:300-301). 다시 말하면, 말이 현실과 충돌하는 곳이고, 그래서 말이 파편화되는 곳이다.

### Ⅲ. 『떠도는 무리』, 작품의 구조와 콜롬비아의 사회정치적 상황

이 소설은 실향민 쉼터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여성의 일인칭 시점으로 서술된다. ‘샘물’이라는 이름의 이 자원봉사자는 한쪽 발의 발가락이 여섯 개인 7x3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모두 합하면 스물한 개이고, 그래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것이었다. 루에다는 7x3이란 별명과 익명성이 강제 이주와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정 장소에 정착하지 못하는 현실과 정체성 상실을 의미하며, 개인의 정체성을 수치나 통계로 표시하는 비인간화된 현상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2004:403). 레스트레포의 이 작품은 1948년부터 1958년까지 콜롬비아 폭력 사태가 발생했던 시기와 1980년대의 게릴라 조직과 마약 밀매조직, 그리고 우익 민병대 문제를 다룬다.

라우라 레스트레포의 소설은 서문과 17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40

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이지만, 약 50년에 걸친 기간을 다룬다. 이 작품에서 언급된 가장 이른 날짜는 1948년이며, 현대와 관련된 이야기에는 구체적인 연도가 언급되지 않는다. 주인공 7x3이 실행된 침터에 모습을 드러낼 때 몇 살이었는지, 그가 화자 샘물과 몇 년도에 만나는 지는 확실하지 않다. 화자는 “그때부터 이미 반세기가 흘렀는데,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은 멈추지 않아요, 얼굴만 바꿀 뿐이에요.”(36)하고 말하는 데, 여기서 대략 1990년대 후반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소설 후반부에는 구체적인 시간이 완전히 생략되는데, 이것은 끝없이 계속되는 분쟁에 대한 절망과 실망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각 장은 각각의 사건을 서술하지만, 그 사건들은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인물들은 자신들이 위치한 시간 순서대로 등장하지 않는다.

이 작품은 핵심 장면, 즉 7x3과 샘물의 만남, 그리고 양어머니 마틸데 리나를 찾는 것처럼 앞으로 다룰 주제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작품 한 가운데(in medias res)에서 시작한다. 첫 번째 문장 “그가 그녀를 찾느라고 평생을 보냈는데, 절대로 못 만나게 될 거라고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었어요?”(13)는 7x3과 샘물, 그리고 마틸데 리나 사이의 관계를 간결하게 제시하면서, 앞으로 셋의 관계가 진행될 것임을 암시한다. 이렇게 1장은 등장인물과 중심 소재를 소개하면서 이 소설 전체를 특징짓는 서사 구조와 기법, 즉 관점의 빈번한 변화, 내면 독백, 인용 부호 없는 인용문 사용과 직간접 화법의 사용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시제는 단일 문장 속에서도 다양하게 구사되면서, 주인공이 처해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전달한다. 독자는 “가변적인 일생을 적은 흩어진 조각”(25)을 재구성하고, 일인칭 화자가 일기에 적은 생각을 통해 두 주인공 사이의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차이를 감지한다.

2장은 주인공 7x3의 출생을 언급하고, “그가 기억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강박의 여정은 그가 태어난 바로 그날, 즉 1950년 1월 1일에 시작한다.”(25)라고 말하면서, 1950년으로 국한된다. 3장은 콜롬비아의 정치 상황과 주인공의 고향 탈출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4장은 페르페

투아 부인의 회고를 통해 2장에서 언급된 7x3의 삶을 우회적으로 언급한다. 이렇게 12장까지는 7x3의 삶, 즉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7x3과 샘플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7x3	샘플
<b>차이점</b>	
마틸데 리나를 찾음	7x3을 찾음
콜롬비아 원주민 출신(검은 머리)	외국인 (파란 눈, 하얀 피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함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음
과거에 치중함	현재 속에서 살고 있음
피해자로 폭력을 직접 경험함	관찰자로 폭력을 간접 경험함
국내 실향민	자원봉사자
말이 적음(질문에만 답함)	말이 많음(질문함)
<b>공통점</b>	
이름 없음	
고향에서 멀리 있음	
혼자임	

이 도표가 보여주듯이 7x3과 샘플은 이름이 없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며, 혼자 살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7x3과 샘플은 다른 점도 있으며, 이런 유사성과 차이점은 ‘경계성’을 보여주는 측면인데, 이것에 관해서는 IV장에서 살펴본다. 한편 마틸데 리나의 실종을 비롯해 고향을 떠나는 과정에서 일어난 극적인 사건들은 간략하고 객관적으로 서술된다. 주인공의 개인적 감정도 자세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단순하고 간략한 7x3의 언어 역시 전체 소설을 관통하는 구조적 요소이다. 두려움과 불신은 암시적으로 드러나고, 주인공의 과묵함 때문에 『떠도는 무리』는 큰 긴장감 없이 차분하게 진행되며, 구체적인 시간적 단서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이 소설의 핵심인 7x3과 샘플의 만남은 12장에서 반복되면서, 과거의

축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서사 부분을 마무리한다. 12장부터는 현재가 중심이 되면서, 7x3과 샘물이 발전시키는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런 초점 변화는 서사 형식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1부에서는 행동과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서술되지 않지만, 12장부터 시작되는 2부는 시간 순서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마틸데 리나가 중요한 존재로 부각하지만, 2부에서는 그 중요성이 사라진다. 다시 말해, 80페이지가 넘는 1부에서는 마틸데 리나가 거의 모든 페이지에 등장하지만, 2부에서는 그녀의 존재감이 사라진다. 그러면서 2부에서는 실행민 쉼터를 둘러싼 드라마와 7x3이 쉼터의 삶에 점차 통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차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부	2부
순환적	선형적
시간 순서를 지키지 않음	시간 순서대로 진행됨
과거 시간	현재 시간
7x3이 악자(picaro) 역할	7x3이 영웅 역할
서사 관점이 자주 바뀜	서사 관점이 거의 바뀌지 않음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7x3의 역할이다.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7x3이 위기에 처한 실행민 쉼터를 지키고 구해내면서, 악자에서 영웅으로 탈바꿈하기 때문이다(Cascante 2007:212). 그리고 작품 전반에 걸쳐 샘물과 7x3은 불분명한 감정으로 긴장감을 유지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한다. “그의 체취가 아주 진하게 내게 닿고, 나는 그가 우리를 분리하고 있던 산만한 이야기들과 흐릿한 형상의 직물을 내려놓는 걸 본다.”(138) 이 마지막 말은 7x3과 샘물의 긴장 관계가 해소되면서, 이해와 관용이 개인 차원에서도 실현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7x3의 지휘 아래 자원봉사자들은 힘을 합쳐 난민 쉼터를 지키고 구해낸다.

『떠도는 무리』는 국내 실향민 문제를 통해 현대 콜롬비아의 정치와 사회를 보여준다. 그리고 엄청난 수의 난민에 대한 왜곡된 통계와 맞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개인의 이야기를 서술한다. 7x3은 양어머니 마틸데 리나뿐만 아니라 집/가정을 찾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행위와 같다. 한편 샘물은 타인의 삶과 콜롬비아의 정치적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며 질문하는 외국인 자원봉사자이다. 그녀는 대화를 통해 과거에 참여하고, 낯선 사람과 교류하면서 사랑과 이해와 관용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콜롬비아의 사회정치적 상황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떠도는 무리』의 공간적 위치는 부분적으로 확인되지만, 그 현실의 공간은 중요하게 기능하지 않는다. 이 작품에서는 중요한 세 장소가 있는데, 하나는 7x3이 태어난 ‘춤추는 성모마리아(Santamaría Bailarina)’이다. 두 번째는 토라(Tora)<sup>7)</sup>인데, 이곳은 어둡고 냄새나며 위험한 장소이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수녀들은 ‘4월 9일(Nueve de abril)’<sup>8)</sup>이라는 난민 쉼터를 운영한다. 7x3의 고향은 정부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고, 따라서 그 공간은 오늘날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곳과 접해있다고 언급되는 우일라(Huila)와 톨리마(Tolima)는 실제로 존재하는 지역이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바라카베르메하(Barrancabermeja)<sup>9)</sup>이다. 이곳은 우익 민병대와 좌익 게릴라가 도시의 여러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던 대표적인 도시였다. 『떠도는 무리』에서는 이 지역에서 발생한 갈등이 암시적으로 나타난다.

7) 이곳은 레스트레포의 소설 『검은 신부 (*La novia oscura*)』에 등장하는 허구의 도시이기도 하다.

8) 1948년 4월 9일은 콜롬비아의 자유당 대통령 후보였던 호르헤 엘리에세르 가이탄(Jorge Eliécer Gaitán)이 살해된 날이며, 이 사건으로 자유당과 보수당이 서로 죽고 죽이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다.

9) 콜롬비아 석유 산업의 중심도시로 산탄데르(Santander)주에 있다.

죽음의 냄새는 흩어졌지만, 이제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보름도 지나지 않았지만, 일련의 범죄가 이 지역을 휩쓸면서, 스물두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았다.(117)

아만사가토스<sup>10)</sup> 학살의 생존자 신세 명이 도착했던 그날 오후, 쉼터는 이미 발 디딜 틈도 없었다. 그들은 무장 계털라 세력을 피해 도망쳤으며, 아이들과 노인들, 그리고 부상자들을 데리고 오픈 강으로 뛰어들었고, 밀림을 가로질러, 밤새 녹초가 된 몸으로 조용한 강물을 건넜다.(129)

두 인용문 모두 16장과 17장의 시작 부분으로, 통제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도시의 상황과 정부의 부재를 잘 보여준다. 여기서 언급한 아만사가토스 학살은 1998년 5월 16일에 토라(바랑카베르메하)에서 발생하여 서른두 명이 사망했고, 많은 사람이 납치된 사건이다. 이런 학살이라는 내부 갈등의 주요 원인은 보수당과 자유당의 분쟁이다. 그래서 자유당을 지지하던 주인공의 고향은 보수당이 이끄는 정부군에게 파괴되면서 지도에서 없어진다. 이렇게 보수당과 자유당이 벌이는 내전은 『떠도는 무리』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면서 작품 속의 현실로 작용한다.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설정된 공간은 토라(Tora)라는 도시이다<sup>11)</sup>. 토라는 “불타듯이 뜨거운 석유 생산지”(62), 혹은 “강철 심장을 가진 가난한 도시”(86)로 불린다. 그리고 7x3은 “석유가 모두에게 일 자리를 줘” “토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더 잘 돌아가.”(63)라고 말하면서, 실행민들에게 토라로 갈 것을 권하는데, 이것은 국내 실행민들이 극심한 가난과 폭력에 시달리는 농촌에서 벗어나 대도시로 향하는 상황을

10) 아만사가토스(Amansagatos)는 해발 1825미터에 있는 산탄데르주의 조그만 마을이다.

11) 이곳은 오늘날의 바랑카베르메하에 해당하는데, 스페인 정복자 곤살로 히메네스 데 케사다(Gonzalo Jiménez de Quesada)는 1536년 10월 12일에 막달레나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토라’라는 조그만 마을을 발견했고, 그곳을 바랑카베르메하로 이름붙였다.

암시한다.

바랑카베르메하는 이 소설에서 7x3이 찾아가고 실향민으로 봄비는 ‘4월 9일’ 쉼터의 배경이다. 이 쉼터는 목적지 없이 떠도는 국내 실향민들을 위한 곳이다.

여기에 영원히 머무르려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이곳은 그저 간이 역이고 미래를 제공하지 않아요 [...] 그들이 비극을 극복하고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동안, 우리는 실향민들에게 지붕과 피난처, 그리고 먹을 걸 주지요.(100)

이 쉼터는 7x3에게 집/가정이 된다. 그러자 그는 마틸데 리나를 찾는 작업을 멈추고 그곳이 ‘여성화된 집’, 다시 말해 그가 그토록 찾고 보호하려고 했던 양어머니를 대체할 수 있는 장소임을 깨닫는다. 그는 외부의 공격에서 그곳을 지켜내고, 쉼터와 여성과 약자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다. 또한 ‘4월 9일’ 쉼터는 성찰과 회상의 장소로 기능한다. 극한 상황에 처해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면서 다른 피해자들과 생각을 주고받고, 그렇게 자신들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체성을 확인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 IV. 강제 실향: 집/가정의 의미와 정체성의 문제

이주와 이동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핵심 경험으로 수용되면서(Rueda 2004:394), 이 주제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전지구적이지자 초국가적 관점에서 이동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집중했지만, 국내 실향에 관해서는 거의 침묵했다. 그 결과 난민은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난민법이나 난민협약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국내 실향민의 경우 난민법제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도 어려운 실정

이다(이인수 2019:212). 그래서 국내 실향민은 난민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에 있는 주변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떠도는 무리』의 작중 인물은 국내 실향민들이 느끼는 심리적·사회적·문화적 현상을 잘 보여주면서, 국내 실향의 희생자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서술한다.

이주와 장소,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는 문학 작품은 대부분 망명자, 국외 추방자, 이주자와 난민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혹은 한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으로의 이주에 바탕을 둔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나 호미 바바(Homi Bhabha) 같은 문화 비평가들은 이런 사람들의 유동적 정체성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예를 들어, 영원히 이동하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있을까? 자기의 모든 것과 멀리 떨어지면서 느끼는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경계 공간, 즉 공개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 사이, 혹은 한 공간과 다른 공간 사이의 모호한 공간에 있게 되면 그의 정체성은 어떤 변화를 겪을까?

이주에 관한 이론이나 연구 대부분은 디아스포라와 다양한 문화 사이의 이동에 관해 관심을 기울인다. 국내 강제 실향의 희생자들은 난민 처럼 몸이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아직 거주하면서도 그 나라에 속하지 않고, 따라서 국경을 넘는 이주자와는 다르다. 『떠도는 무리』의 작중 인물 7x3은 바로 이런 중간 공간, 즉 경계에 있다. 그는 강제 퇴거로 인해 계속된 이동이라는 현실 이외의 다른 현실은 알지 못한다. 끊임없이 움직이며, 고독하고, 양어머니를 찾아다니며, 가정이 없는 인물이다. 고정된 정체성이 없으며, 가족이나 그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도 없다.

이동/이주는 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이며, 경계 공간, 혹은 ‘비장소(non-place)<sup>12)</sup>는 이주자 혹은 실향민이 매일 경험하는 근본적 구성요

12) 프랑스의 인류학자 마크 오제(Marc Augé)가 널리 유포한 용어이다. 그는 특정한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는 관계의 부재, 역사성의 부재, 고유

소이다. 다시 말해, 7x3은 내전이라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특정 장소에서 삶의 직접성을 깨닫는 지리적 능력을 상실한다. 그는 이런 비장소에서 살면서, 양어머니를 찾으러 하염없이 돌아다닌다. 그것이 그의 구체적인 목표이고, 그의 존재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 7x3은 영속적인 경계 공간 안에 존재하며, 이것은 화자 샘플이 “중간 조건(condición intermedia)”<sup>(14)</sup>이라고 평가하는 모호한 공간이다. 그는 이곳도 저곳도 속하지 않는 경계 공간, 즉 중간 지역에 존재한다.

주인공의 파편화된 정체성과 심리 상태는 그가 거주하는 땅의 경계성과 유사하다. 7x3은 태어난 날 ‘춤추는 성모마리아’ 마을의 교회 문가에 버려졌다. 그 마을은 우일라와 톨리마주 경계 지역에 있는데, 그것은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그렇게 7x3은 고정된 정체성을 부정당하고,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부모인지도 모른다. 7x3은 자기가 갈 곳도 모른다.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는 돌아갈 집/가정이 없으며, 게다가 자기 정체성을 밝혀줄 유일한 공간인 ‘춤추는 성모마리아’는 이미 파괴되어 있었다.

이런 ‘뿌리 없음’으로 7x3은 분명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며, 자기 뿌리도 찾을 수 없다. 그는 뿌리가 잘린 사람이 아니라, 아예 뿌리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양어머니 마틸데 리나를 통해 자기 과거와 연결 고리를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가정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양어머니를 찾아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닌다(Cascante 2007:210).

---

한 정체성의 부재 등의 특징을 지니는 공항이나 대형 쇼핑몰, 멀티플렉스 영화관 같은 장소들을 ‘인간적인 장소’가 될 수 없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비장소(non-place)’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정현목 2013:117). 그러나 비장소는 디스토피아적인 장소 상실의 공간이 아니기에 단순히 장소의 상실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은 장소가 없는 곳이 아니라 전통적 장소가 아닌 곳이라는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장소는 디스토피아보다는 헤테로토피아와 더 유사하다. 그렇다면 비장소는 유토피아처럼 ‘없는 곳’이거나 디스토피아처럼 ‘나쁜 곳’이 아니라, 그것들과는 다른 것이요(김미현 2019:190-191),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이 강조하는 경계성과 연결된다.

호미 바바는 ‘낯섬 (unhomeliness)’<sup>13)</su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한 그룹이나 장소에 속하지 않은 상태, 심지어 그런 그룹이나 장소 안에 살면서도 그런 무리에 속하지 않은 상태를 지칭한다. 이 소설에서 7x3은 콜롬비아에서 자랐지만, ‘친숙하거나 편안하지 않은’ 공간에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그 어떤 종류의 관계도 만들지 않는데, 예외가 있다면 마틸데 리나이다. 심지어 국내 실향민 공동체 안에서도 마틸데 리나와 7x3은 순응하는 사람들의 위치에 절대 있지 않는다. 그들은 그 무리의 주변에서 살면서, 그 무리와 떨어져 있는 걸 선호한다.

그렇게 7x3은 자기가 구성원으로 정체성을 갖게 될 장소나 무리를 만날 때까지 파편화된 존재로 남는다. 그는 자기 존재를 재구성하고 정체성을 확인하여 고독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대신, 과거의 향수에 굴복하고 만다(Cascante 2007:211). 그래서 7x3은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며, 마틸데 리나의 아들로써만 정체성을 되찾으려고 한다. 그녀가 없다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없는 동안 7x3은 “갈 곳이 없다.”(53) 다시 말하면 집이 없다. 그는 자기 안에도 ‘집’을 가진 적이 없지만, 마틸데 리나는 나름대로 그를 지켜주었고, 그녀- 그녀의 육체-는 7x3에게 정체성과 소속감을 주었던 것이었다.

집/가정처럼 확실하고 안전한 장소가 없자, 7x3은 떠돌아다녀야만 하는 잔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다. 마틸데 리나를 찾다가 마지막으로 그는 ‘4월 9일’ 쉼터<sup>14)</sup>, 즉 프랑스 수녀들이 운영하는 국내

13) 호미 바바는 ‘낯선 존재(unhomed)’는 “가정이나 집이 없는 노숙자(homeless)가 아니라고 말한다(2002, 26) 바바에 따르면, ‘낯섬’은 이주자와 탈식민주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경험에서 가장 쉽게 확인되며, 지리적 또는 문화적 이탈이 그들의 특징이 된다. 그것은 그들이 이전에 자신의 공간이라고 느낀 장소에서 강제로 쫓겨났거나 혹은 친숙한 장소가 급격한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친숙한 장소에서도 불안하게 느끼는 심리적 상태이다. 한편 타이슨(Tyson)은 이렇게 지적한다. “편하지 않은 건 당신이 집에 있어도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 속에 집에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문화 정체성 위기는 당신에게 심리적 도피처를 만들어주었다.”(2006:421)

14) 바랑카베르메하에 있는 ‘4월 9일 동네’의 농민 쉼터는 콜롬비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이었다.

실향민 쉼터에 도착한다. 바로 그곳에서 화자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성스럽고 안전한 그곳 경당에서 실향민이 자아를 되찾도록 지원한다. 쉼터는 7x3에게 그가 통합될 수 있는 공동체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과거에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실향민 쉼터, 즉 일시적인 성격의 쉼터는 7x3에게 영원한 거주지가 된다. 안전한 곳에서 안정을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는 능동적이고 중요한 구성원으로 쉼터 공동체에 자리 잡는다. 여기서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그가 언어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Cascaete 2007:212). 화자의 도움으로 거의 말이 없던 7x3은 말하는 법을 배우면서 정체성을 획득하고, 자기를 에워싼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 그는 자기에게 희생자 차원을 뛰어넘는 정체성이 있음을 깨닫고는 쉼터의 보호자가 된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과 더불어 마틸데 리나를 찾겠다는 꿈을 버리고, 보다 실현 가능성 있는 목표를 추구하게 한다. 그것은 바로 정부군의 위협으로 위협에 처한 쉼터를 구하는 일이다.

우리는 세상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전쟁의 소음으로 귀가 먹은 나라 한가운데서 도움을 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대도시 중의 하나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심지어 이 절벽에서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법이나 인간의 법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공권력도 올라오지 못하며 [...] 일간신문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야 말할 필요도 없다.(118)

7x3은 위협에 처한 쉼터를 구하는 데 성공하고, 그곳은 그의 집/가정이 된다. 그런데 7x3에게 정체성과 집/가정을 제공하는 사람은 여성이다. 이 소설에서 여성의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부재한 어머니, 역시 부재한 양어머니, ‘춤추는 성모마리아’ 마을의 수호 성녀상, 프랑스 수녀들이 운영하는 실향민 쉼터와 화자가 대표적이다. 집/가정과 여성성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자궁과 연결되는데, 이것은 문학 작품에서 쉽게 볼 수 있다.

7x3은 부재한 어머니를 찾는데, 이것은 안전한 공간을 회복하고 태어난 날부터 부정된 공간을 되찾고자 하는 욕망이다. 태어난 순간부터 버려지기 때문에, 7x3은 집/가정이란 공간에서 추방된 존재이며,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유대관계를 만들 기회조차 없었다. 하지만 버려진 그날, 마틸데 리나는 그를 구해주고 보살피며 입양한다. 그렇게 마틸데 리나와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 당시 그녀는 그에게 유일한 여성 인물이자 어머니였다.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보호해 준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기에, 오로지 상대방이 있을 때만 안심하고 안전하다고 느낀다. 이런 이유로 생물학적 어머니의 버림과는 달리, 마틸데 리나의 실종은 거의 그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그는 양어머니를 찾아 끊임없이 세상을 돌아다닌다. 여성 속에서 피난처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실행민 쉼터는 여성적 공간으로 규정될 수 있다. 여성이 지시하고 이끌며, 실행민을 보호해 주고 지켜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7x3은 이 공간으로 들어온다. 그는 마틸데 리나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수용하면서, 여성적 환경의 쉼터로 그녀를 대체한다. 그리고 이 여성적 공간을 영속화하면서 자기를 보호해 주는 안전한 장소로 삼고자 한다. 그래서 그곳이 위협에 처하자, 그 여성적 공간을 구해내면서 “서사적 영웅”(121)이 된다. 그리고 여성 공간의 수호자 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다시 말해, 위협에 처한 여성(이 경우 쉼터)을 구하면서 영웅이 되고,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이 여성에 종속되었음을 재확인한다.

이런 상황은 폭력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해결책은 전통적 가치의 영속화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안전한 피난처로 여성의 공간을 강조하고 희생자들을 구하는 남성의 영웅적 역할을 찬미하는 것에 있는 것 같다. 이 작품에서 작중 인물들은 전통적 가치에 집착하지만, 작품 자체는 그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소설 끝부분에서 7x3은 온 힘을 다해 쉼터를 지키지만, 그것이 폭력과 이동의 불안정성과 위협을 완전히 제거한 것은 아니다. 쉼터는 계속해서 위협을 받을 것이고,

그런 위협에서 살아남을 것인지 전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작품은 해결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지 않지만,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이 폭력의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면서(Cascante 2007:220),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난 비장소, 즉 경계 공간을 강조한다.

## V. 맺음말: 집단과 개인, 폭력과 평화의 문제

『떠도는 무리』에서 레스트레포는 국내 실향민의 경계성과 정체성 상실과 회복을 다룬다(Díaz Zambrana 2007:122). 이것은 수많은 콜롬비아인이 폭력의 후유증으로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했던 현상이다. 이 소설은 자기 인식과 자기 확인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실향의 인간적 차원을 강조할 뿐 아니라, 실향의 경험은 콜롬비아의 경험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Olaya 2007:239). 그러면서 실향 경험에 내재하는 집단과 개인, 폭력의 문제도 함께 보여준다.

집단과 개인의 문제는 이 작품의 제목에서부터 나타난다. ‘떠도는 무리’에서 ‘무리’는 이름 없는 집단을 지칭하며, 따라서 20세기 후반의 콜롬비아에 커다란 상처를 남긴 사회적 현실의 집단적 관점을 강조한다. 개인 실향민은 무리에 포함되고, 무리 안에서 사라지면서, 결국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한다. 한편 이 작품을 쓰는 동안, 레스트레포는 이 소설의 제목으로 ‘갑자기, 이름 없이(De repente y sin nombre)’를 생각하고 있었다(Mejía 2004:297). 이 임시 제목은 화자의 생각에서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녀는 “삶이 주는 오싹한 모든 것은 항상 갑자기, 이름 없이 도착해요.”(16)하고 말한다. 그녀에게 오는 “오싹한 모든 것”은 이름 없는 남자인데, 그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무리와 함께 이름이 없는 특징을 공유한다.

최종 제목은 집단적 성격을 드러내지만, 임시 제목은 갑자기 여자 화자의 삶에 모습을 드러내는 남자의 개인성을 강조한다. 그는 떠도는 무

리에 묻혀 있지만, 동시에 한쪽 발이 기형인 까닭에 개인화되고 눈에 띄는 특별한 사람이 된다. 이 작품은 집단과 개인을 대립하면서 긴장 관계를 조성하는데, 이는 3x7이 생활 습관과 말하는 태도, 동물이나 자연을 대하는 방식에서 동료들과 차이를 보이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한편 폭력의 문제는 이 소설을 관통할 뿐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내전에 시달리는 국가에서는 절박한 주제이기도 하다. 화자는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한다.

내 교수였던 르네 지라르에게 나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모든 걸 휩쓰는 이 폭력은 비이성적이기에 참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편지를 써요. 그는 내게 답장을 보내면서, 폭력은 절대로 비이성적이지 않다고, 전쟁을 벌이려고 할 때면 폭력과 같은 그 누구라도 합당한 이유로 가득 찬다고 말해요.(36-37)

여기서 비이성이란 무엇일까? 비이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폭력은 이성 없이 생겨난다는 말일까? 아니면 비이성이 아니라, 무질서라고 이해해야 하는 건 아닐까? 사울 프랑코(Saúl Franco)가 콜롬비아 폭력에 관한 연구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폭력 행위는 분명하건 불분명하건 목적이 있다. 그것은 특정한 사회적·역사적 맥락에서 접근할 때만 해석할 수 있다(1999:7).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에게 폭력의 논리는 충동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충동을 일으킨 대상에게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대체물이라도 찾아야 한다. 많은 사회에서 폭력은 이런 대체물을 제공받으면서 해소된다. 그리고 그런 대체물은 제의를 통해 희생의 형태를 띠게 된다. 동물이나 주변인(외국인들, 전범들, 미성년자들, 장애인들)은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복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폭력을 당하게 된다. 유혈 행위의 폭력은 새로운 유혈 행위이기에, 복수는 폭력의 악순환을 만든다(Mejía 2004:302-303). 그래서 구스타보 메히아는 지라르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서 “폭력만이 폭력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고, 그래서 폭력은 그 자체로

영원하다. 모두가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자 하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진정한 끝마침에 이를 수 없다.”(2004:303)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라우라 레스트레포의 이 소설은 폭력의 순환을 끊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협력과 화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병든 강을 건너고 저곳 강변에 남아서 살지.”(30)하고 마틸데 리나는 자기 양아들에게 가르쳐준다. 이 작품에서 화해와 협력은 이런 폭력에 맞선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은 이런 생각을 잘 보여준다. 쉼터가 정부군의 위협을 받자, 이 쉼터를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시민이 자원해서 달려오는데, 작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서술한다.

열네 살부터 여든 살까지 나이를 불문한 온갖 피부색의 다양한 사람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는데, 좀처럼 보기 힘든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전혀 공통점이 없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지 쉼터 주위를 비무장한 인간 울타리로 에워싸고 보호하여 위협을 물리치는 것이었다. 적어도 곧 다가올 위협을 분쇄하고자 했다.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한 습관에 따르면, 그것만이 온갖 종류의 폭력적인 사람들과 맞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다.(119)

이 집단은 7x3이 자원자들을 결집한 결과이다. 그는 소설이 상당 부분 진행되는 동안 폭력적인 과거와 부정적 방식으로 묶여 있었지만, 이 제는 그런 과거와의 관계를 끊는다. 물론 이런 집단행동이 평화를 확실하게 영원히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작품은 역사가 이런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면 “혼돈이 아니에요. 이게 역사예요. 진짜 역사란 말이예요 [...] 단지 조그맣고 놀라운 이야기로 파편화되었을 뿐”(127)임을 강조한다. 그건 단지 파편화된 개인행동의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담론이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합쳐져 피해자 중심의 또 다른 역

사를 만들기 때문이다.

『떠도는 무리』는 콜롬비아의 국내 실향이라는 특정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라틴아메리카의 상황을 상당 부분 반영하기도 한다. 7x3은 이렇게 느낀다. “거울을 지나 현실의 뒤쪽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는 조용히, 그리고 공식적으로 조국이라는 지질한 나라의 어둠 속에 실향민들의 거대한 비밀 대륙이 펼쳐져 있다.”(88) 이 말은 이 작품이 콜롬비아를 비롯해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국내 실향민들의 이야기임을 확인시켜 준다.

## ■ 참고문헌

- 김미현(2019), 「21세기 재난소설의 ‘비장소(Non-Place)’와 경계 사유」, 『이화어문논집』, No. 40, 186-207.
- 이인수(2019), 「무력 분쟁과 폭력 사태로 인한 실향민에 대한 난민법제의 보호」, 『인권과 정의』, No. 481, 210-228.
- 정현목(2013),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non-place)’의 등장」, 『비교문화연구』, Vol. 19, No. 1, 107-141.
- Albornoz, María Victoria(2015) “Cuando la guerra amaine: el trauma y el duelo en *La multitud errante* de Laura Restrepo”, (eds) Jarzombkowska, Dominika y Moszczyńska-Dürst, Katarzyna, *¿Decir lo indecible?* Varsovia: Instituto de Estudios Ibéricos e Iberoamericanos de la Universidad Varsovia, 107-125.
- Averis, Kate(2015), “Writing Displacement, Demythologising Violence”, *Romance Studies*, Vol. 33, Nos. 3-4, 297-308.
- BhaBha, Homi K(2002), *El lugar de la cultura*, Buenos Aires: Manantial.
- Capote Díaz, Virginia(2016), *Reescribir la violencia*, New York: Peter Lang.
- Carpenter, Victoria(2007), *A World Torn Apart: Representations of Violence in Latin American Narrative*, Bern: Peter Lang.
- Cascante, Helena Isabel(2007), “El desplazamiento: espacio, hogar e identidad”, Sánchez-Blake, Elvira y Lirot, Julie, 207-222.
- De Grandis, Rita(2003), “Recontextualizing Violence as a Founding Myth”, (eds.) Hart, Stephen y Young Richard, *Contemporary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London: Arnold, 90-101.
- Díaz Zambrana, Rosana(2007), “Los territorios liminales en *La multitud errante* de Laura Restrepo”, *Hispanic Journal*, Vol. 28, No. 2(Fall), 121-132.
- Franco, Saúl(1999), *El quinto, no matar: Contextos explicativos de la*

- violencia en Colombia*, Bogotá: Tercer Mundo.
- Giraldo, Luz Mary(2008), *En otro lugar: migraciones y desplazamientos en la narrativa colombiana contemporánea*, Bogotá: Editorial Pontificia Universidad Javeriana.
- Marín Taborda, Jorge Iván(1999), “Historia y violencia en la Colombia contemporánea”, *Memoria y sociedad*, Vol. 3, No. 6(abril), 157-177.
- Mejía, Gustavo(2004), “Fragmentación del discurso histórico: Individuo y Multitud en *La multitud errante*”, *Revista de Crítica Literaria Latinoamericana*, No. 59, 297-304.
- Molano, Alfredo(2001), *Los desterrados: Crónicas del desarraigo*, Bogotá: Punto de Lectura.
- Olaya, María E.(2007), “Nomadismo e identidad”, en Sánchez-Blake, Elvira y Lirot, Julie, 237-250.
- Restrepo, Laura(2001), *La multitud errante*, Bogotá: Planeta Colombiana.
- Rueda, María Helena(2004), “Escrituras del desplazamiento”, *Revista Iberoamericana*, Vol. LXX, No. 207, Abril-Junio, 391-408.
- Sánchez-Blake, Elvira y Lirot, Julie(2007), *El universo literario de Laura Restrepo*. Bogotá: Taurus.
- Tyson Lois(2006), *Critical Theory Today: A User-friendly Guide*, 2nd ed. New York: Routledge.

❖ ABSTRACT

Internal Displacement and the Poetics of the Novel:  
An Analysis of Laura Restrepo's *Multitud errante*

Song, Byeong Sun  
University of Ulsan

Internal displacement (*desplazamiento forzado interno*) has been a prominent feature of violence in Colombia. However, there is not much literature on internal displacement. The novel *La multitud errante* (*A Tale of the Dispossessed*) by Laura Restrepo was one of the few works that dealt with internal displacement at the time of its publication. The situation has not changed much in the two decades.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migration, writing, and identity based on the fact that the contemporary postmodern world is characterized by nomadism, whether voluntary or forced. In other words, analyzing Laura Restrepo's *La multitud errante*, it dismantles the existing relationship between identity and home/family to reveal new forms of relationship and implied issues such as individuals and groups, violence, and peace.

Although *La multitud errante* focused on the specific situation of internal displacement in Colombia, it also reflected the situation in Latin America. This shows that this novel is not only a story of internal displacement in Colombia and other Latin American countries, but also can be extended to the case of international displacement, that is, exiles, refugees, and migrants.

Keywords: Internal Displacement, Migration, Laura Restrepo, Identity,  
Violence in Colombia

- 논문투고일 : 2025. 01. 08
- 심사완료일 : 2025. 01. 31
- 게재확정일 : 2025. 02. 07

